21.10.08 金 벙커- 박대현- 호주 담당

# 오커스 뒤통수 맞은 프랑스, EU-호주 FTA 막을 수도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9/904948/> 매일경제, 2021-09-21

## **유럽담당 장관 "아무일 없던 것처럼 협상 진행안돼"프랑스 분노 지속…EU, 호주에 세번째 큰 교역 상대**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맺은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화가 난 프랑스가 호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장관은 최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오커스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민주 국가들 사이,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 신뢰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더는 신뢰하지 않는 나라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오커스가 EU와 호주의 FTA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EU와 호주는 2018년 6월 FTA 협상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FTA 회담이 11라운드까지 진행됐다.

차기 FTA 회담은 올해 늦가을에 진행될 예정이다.

호주는 애초 올해 말까지 EU와 FTA를 맺기를 원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CNN은 EU 집행위원회가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무역 협상을 진행하지만 프랑스가 반대할 경우 호주와의 FTA 협상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EU는 호주에 세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다.

지난해 양측의 상품 무역은 총 규모가 420억 달러(약 50조원)이고 2019년 서비스 무역 규모는 300억 달러(약 35조5천억원)였다.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중국이지만 오커스를 계기로 호주와 중국의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안보, 국방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오커스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호주는 오커스 발족에 따라 미국, 영국의 지원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호주가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공급받기로 한 560억 유로(77조 원) 규모의 계약이 파기됐다.

프랑스 정부는 동맹국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지난 17일에는 이례적으로 미국과 호주 주재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했다.

**미국과 화해 분위기 접어든 프랑스…호주·영국과는 여전히 냉랭**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3151000081> 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2021-09-23

## 호주 총리 "적당한 시점에 대화 희망"…영국 총리 "그만 좀 해라"

## 잠수함 계약 파기 당한 나발그룹, 조만간 호주 상대 소송 제기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프랑스와 미국 사이 갈등이 해빙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호주·영국과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는 미국·호주·영국의 새로운 3각 안보 동맹 오커스(AUKUS) 출범을 계기로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맺은 77조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 파기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프랑스와 공식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취재진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듯이 "적당한 시점에 기회가 있을 때" 마크롱 대통령과 유사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이번 계약 파기로 프랑스가 받았을 "상처와 실망"을 이해한다는 모리슨 총리는 호주와 프랑스 사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미국과 프랑스 사이 이슈를 해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프랑스와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지역 안정을 지켜내기 위해 유럽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며 "우리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우리의 오랜 친구와 다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자세로 나오는 모리슨 호주 총리와 달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프랑스가 화를 가라앉혀야 할 때라고 오히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역시 미국을 방문 중인 존슨 총리는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밖에서 만난 취재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친한 친구 중 일부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프랑스어와 영어를 섞어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donnez-moi un break)"고 말했다고 BBC 방송이 전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을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들도 "프랑스의 반응에 약간 당황했다"며 "우리는 모두 파리에 연락을 취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오커스를 발족한다는 미국, 호주, 영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개최 몇 시간 전에서야 해당 소식을 접한 프랑스는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는데 여기서 읽히는 분노의 정도는 상대국마다 조금씩 달랐다.

예를 들어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호주에 주재하는 프랑스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영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따로 불러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부 장관은 오커스 출범에서 영국의 역할이 '스페어타이어' 수준으로 미미한데다 영국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대사를 불러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냉소적으로 평가했다.

호주는 지난 15일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영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2016년 맺은 77조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공급계약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지분을 일부 보유한 나발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피에르 에릭 포믈레는 일간 르피가로에 기고한 글에서 호주의 계약 파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장을 몇 주 안에 호주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kus: Australia-EU trade talks delayed as row deepens

<https://www.bbc.com/news/business-58757749>, BBC, 2021-10-02

**Trade talks between Australia and the European Union have been postponed as a row with France over the so-called Aukus security partnership deepens.**

Last month, Canberra cancelled a $37bn ($27.5bn) deal with France to build a fleet of conventional submarines.

Instead, it will build at least eight nuclear-powered submarines with US and UK technology.

The decision angered Paris, [**which called the deal a "stab in the back"**](https://www.bbc.co.uk/news/world-europe-58610234)by the US and Australia.

In fact, soon after the Aukus agreement was announced, [**France recalled its ambassadors from both Canberra and Washington**](https://www.bbc.co.uk/news/world-europe-58604677).

The ambassador to Washington will now return to his post, but it is not clear if the ambassador to Canberra will do the same.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 has previously questioned whether the EU would be able to strike a trade deal with Australia, in solidarity with France.

But on Friday spokespeople for the Commission insisted it is not "punishing anybody". The decision to delay the talks by a month took place a couple of days ago and would "allow us to prepare better", they said, adding that it was not "unusual" to push back trade talks.

Australian Trade Minister Dan Tehan declined to comment on what part, if any, the submarine deal had played in delaying negotiations but confirmed that the next round of talks, which were scheduled to start on 12 October, had been postponed until the following month.

"I will meet with my EU counterpart Valdis Dombrovskis next week to discuss the 12th negotiating round, which will now take place in November rather than October," he said.

In June, after the last round of talks over a free trade deal, the European Commission said negotiations had "progressed in most areas of the future agreement".

The next round of talks was expected to include a number of subjects including trade, invest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EU is Australia's third-biggest trading partner, with trade in goods and services totalling almost $72bn last year.

# France to send ambassador back to Australia amid Aukus row

<https://www.bbc.com/news/world-australia-58824604>, BBC, 2021-10-07

**France will send its ambassador back to Australia to "redefine" relations, after Canberra reneged on a deal to buy French submarines and sparked a row.**

Last month, Australia formed the Aukus security pact with the US and the UK - aimed at maintaining Western influence in the Asia-Pacific.

That saw Australia end a $65bn (£48bn) deal with France to instead access US nuclear-powered submarine technology.

Paris called the deal a "stab in the back".

Soon after the shock announcement, France recalled its ambassadors from Canberra and Washington DC in protest.

But while [**it has sought to mend the rift with the US**](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8659627), France has continued to freeze out Australia.

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has said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has refused to take his calls. Australia's trade minister has also been shunned by his French counterpart.

Last week, [**negotiations over an Australia-EU trade deal were also pushed back**](https://www.bbc.com/news/business-58757749), in what was widely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row.

French officials have said they were blindsided by Canberra, which had maintained talks about the French submarines while working to secure an alternative deal.

France's contract to build a fleet of conventionally powered submarines for Australia, dating to 2016, was to be a key part of France's regional engagement.

Foreign Minister Jean-Yves Le Drian said on Wednesday that while his country would "start afresh" with Australian relations, it would "not have an impact in our determination to remain engaged in the Pacific".

The returning ambassador to Australia would also "defend our interests" over the scrapped submarine contract.

Canberra has already spent over $900m on the French programme and is expected to pay a minimum $288m exit fee for breaking the contract.

Australia has said it understands France's "deep disappointment".

"Australia values its relationship with France, which is an important partner and a vital contributor to stability, particularly in the Indo-Pacific. This will not change," Australian Foreign Minister Marise Payne said last month.

Aukus is widely seen as a response to the growing power of China.